



소총 12년만에 메달 쏘았다

광주출신 김종현 사격 남자 50m 3자세에서 銀



광주출신의 김종현(27·창원시청)이 12년 만의 소총 메달을 명종시했다.

한국 남자 소총 대표 김종현은 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 왕립 포병대 기지의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50m 소총 복사 결선에서 101.5점을 쏘아 본선 점수 1171점과 합계 1272.5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종현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에 네 번째 메달이자 2000년 시드니 대회 때 공기소총에서 은메달을 딴 강초현 이후 12년 만의 소총 메달을 안겼다.

한국 남자 소총 선수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이은철(공기소총 금메달) 이후 20년 만의 올림픽 메달이다.

이탈리아의 니콜로 캄프리아니는 본선과 결선에서 모두 대회 신기록을 내며 합계

1278.5(1천180+98.5)점으로 금메달을 땀다.

동메달은 1271.3(1천172+99.3)점을 쏜 매튜 에몬스(미국)에게 돌아갔다.

이번에도 마지막 1발이 메달 색을 갈랐다.

캄프리아니가 본선 대회 신기록인 1180점으로 사실상 우승을 예약한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이 은-동메달 경쟁을 벌인 이날 결선에서 김종현의 막판 '뒷심'이 빛을 발했다.

본선에서 5위로 결선에 오른 김종현은 결선사격 10발(1발에 10.9점 만점)중 첫 두발을 10.3점과 10.7점을 맞추며 2위로 뛰어올랐다.

김종현은 6발까지 2위를 유지했으나 2004년 아테네올림픽 챔피언 에몬스의 추격이 매서웠다.

7발째에서 김종현이 10.3을 쏘지만 에몬스가 만점에 가까운 10.7을 쏘는 바람에 3위로 밀렸다. 이어진 8발과 9발에서도 에몬스는 10.6, 10.7 등 차례로 10점대 후반을 꿰뚫었다.

반면 김종현은 10.1에 이어 9.5점으로 주춤하면서 4위로 치고 올라온 주치난(중국)의 추격을 격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성실함과 끈기로 극복 없는 사격이 장점인 김종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발을 놓치지 않았다.

9발째까지 에몬스와의 1.6점차로 3위에 머물렀던 김종현은 마지막 10번째 발을 침착하게 10.4점에 명중했다.

그리고 조금 뒤 에몬스의 표적에는 7.6점이 찍혔고 김종현은 1.2점차로 에몬스를 따돌리며 첫 올림픽 무대에서 소중한 은메달을 품에 안았다. /연합뉴스



김종현이 6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금메달 명종 비결

후배들에 나눠주고파”

사격 2관왕 진종오

2012 런던올림픽 남자 50m 권총 2연패 위업을 달성한 진종오가 앞으로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비결을 나눠주고 싶다는 또다른 목표를 내세웠다.

진종오는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과 공동취재구역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나만의 기술을 너무 감춰왔는데 이제는 후배들과 나누면서 오래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드라마같은 승부였다.

▲나 역시 정신이 없다. 머리를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것 같다. ‘안되는 날인가’ 싶을 정도로 본선 경기가 안풀렸지만 올림픽에 못 나온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역전승을 예상했다.

▲전혀 아니다. 3등이라도 해서 메달만이라도 따지는 마음이었다. 결선 10발 중 5발까지는 스코어를 봤는데 내 순위가 올라가면서 긴장이 됐다. 그다음부터는 스코어보드를 안봤다.

-최영래와 함께 결선에 올라갔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지 않았다.

▲오늘 경기하면서 심리적인 면에서 편하지는 않았다. 욕심도 조금 났다. 결선 초반에는 부드럽게 나가다가 6발 이후부터 긴장을 많이 했다. 긴장할 때 하는 내 방식대로 경기를 풀었다.

-그 방식이 무엇인가.

▲(웃으며) 그건 아직 비밀이다. 경기 후 많이 웃었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울면 안 되는데 오늘 많이 울었다. 본선에서 경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속이 많이 상했는데 금메달로 보상된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선수로서 다음 목표는

▲영래와 마음껏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만의 기술을 너무 감춰왔는데 이제는 하나둘씩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노하우를 나눠가면서 같이 통탄했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첩첩산중

죽음의 조 넘으니 8강 길목 강호 이탈리아와 격돌



‘죽음의 조’를 뚫고 올라온 여자 배구 대표팀이 8강 길목에서 강호 이탈리아와 격돌한다.

한국은 6일(현지시각)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배구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진행된 대전 추첨 결과 8강에서 이탈리아와 맞붙게 됐다.

한국(승점 8·2승3패)은 세계 최강 미국과 랭킹 2위 브라질이 몰려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에서 미국(승점 15·5승)과 중국(승점 9·3승2패)에 이어 3위로 조별 예선리그를 마쳤다.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세르비아를 3-0으로 완파한 브라질(승점 7·3승2패)은 B조 4위로 8강행 막차를 탔다.

A조에서는 러시아(승점 14·5승), 이탈리아(승점 13·4승1패), 일본(승점 9·3승2패), 도미니카공화국(승점 6·2승3패) 순으로 8강에 합류했다.

런던올림픽 대전 규정을 보면 각 조 1위 팀은 다른 조의 4위 팀과 8강전을 치르고, 각 조 2~3위는 다른 조 2~3위와 추첨을 통해 8강 상대를 정하도록 했다.

세계 랭킹 15위인 한국은 대전 추첨 결과 상대적으로 편한 A조 3위인 일본(랭킹 5위) 대신 A조 2위인 이탈리아(랭킹 4위)가 8강

상대로 결정됐다.

나머지 8강 대전은 중국(랭킹 3위)-일본, 브라질-러시아(랭킹 9위), 미국-도미니카공화국(랭킹 11위)으로 배정됐다.

한국은 절고려한 상대인 이탈리아보다는 상대적으로 편한 일본이 8강 상대로 정해지길 희망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한국은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서 이탈리아와 19차례 대결해 8승11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42%다.

한국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탈리아에 3-2로 힘겹게 승리를 거둔 이후 국제대회 맞대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이탈리아에 0-3으로 패하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김형실 감독은 “일본보다는 이탈리아가 상대하기 훨씬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으면서 선수들의 팀워크와 의지가 강해진 만큼 어느 팀과 만나든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4강 이상에 진출해 1976년 몬트리올을 올림픽 동메달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겠다”고 자신했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꺾으면 미국-도미니카공화국 승자와 4강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태권도 내일부터 금빛 발차기

차동민·황경선 등 4명 출전 ... 싸움이 금 예고



우리나라 선수단이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이라는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한 가운데 이제 확실한 ‘금메달 카드’인 태권전사들이 나서서 종합 순위 10위 달성에 해기를 박는다.

한국 태권도 대표팀은 8일(현지시각)부터 영국 런던의 엑셀런던 사우스아레나에서 열리는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출전해 ‘금빛 레이스’에 가세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남자부 58kg급 이대훈(20·용인대)·80kg초과급 차동민(26·장

흥출신·한국가스공사), 여자부 67kg급 황경선(26·고양시청)·67kg초과급 이인종(30·삼삼에스원) 등 4명이 출전한다.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남녀 4체급씩 총 8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데 특정 국가로 메달이 쏠리는 것을 막으려고 국가당 남녀 2체급씩, 총 4체급까지만 출전할 수 있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대회 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지난 세 차례의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단 선수는 색깔만 달랐을 뿐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볼트 9초63 올림픽 신기록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5일(현지시각)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100m 결승에서 9.63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